



앵커멘트

에너지 자원으로 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국토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연성 산업폐기물의 경우데요.  
먼저, 그 실태를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

리포트

마을 아산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버리고 방치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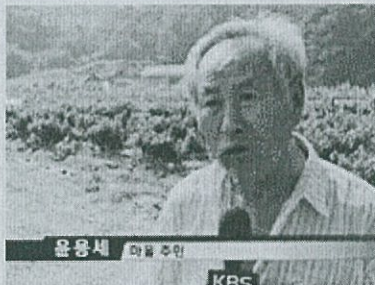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

<인터뷰>마을주민

"좋은 건 추려가고 나쁜 건 저쪽에다 쌓아 놓고 한 거죠."

동네 공터에도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나온 가연성 산업 폐기물입니다.



윤용세 마을 주민

장기석/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실장

"보시다시피 폐기물 보관장이 없잖습니까. 보관장이 없는 폐기물을 그대로 반아다가 동네 공지에다가 야적으로 투기해버린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 처리할 경우 통상 1톤에 15만 원이 들기 때문에 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비만 챙기고 삼척해버리기 일썩니다.

이 처리업체는 아예 부도를 냈습니다.  
마당과 창고에 쌓인 폐기물이 무려 5천 톤, 처리비용만 7억 원을 넘습니다.



장기석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실장



경기도 이천시 송곡리